미·이란 핵 협상 재개 임박…중동 긴장 중대 분수령

이란, 합의안 초안 마련 "신속 합의 기대"…제네바 재담판
미국 "공격 전 마지막 기회"…농축권·대리세력 공방 예고

미국과 이란이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란은 미국 측에 제시할 합의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란 측 제안 내용과 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공격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합의 가능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아직 양측 우려와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며 "목요일(26일) 아마 제네바에서 다시 만날 때 이들 요소를 논의하고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회담에서 "고무적인 신호가 나왔다"며 협상 타결 기대감을 드러냈다.

AFP,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재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도 미국과 이란의 26일 제네바 협상 예정 사실을 확인하며,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24일까지 이란 측의 새로운 협상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특히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악시오스에 이번 외교적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하는 대이란 공격 개시 전 이란에 부여하는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현재 미국은 중동지역에 핵항모를 비롯한 군사자산을 대규모로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순순히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답했다.

또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농축은 우리의 권리이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며, 우리는 평화적 핵에너지를 누릴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작전 위협에 따른 국가 및 정권 붕괴 위기 속에서 이란 영토 내 농축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는 많은 대가를 치렀기에 이 기술은 매우 소중하다. 최소 20년 동안 제재를 받았고, 과학자들을 잃고 전쟁까지 겪었다"며 "이는 이란 국민의 존엄과 자존심의 문제이며, 우리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제키시안 대통령 또한 "우리는 계속 미국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어떠한 잠재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해놨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중동 대리세력 지원 문제도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여전히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및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기습 타격과 관련해 "우리 방공체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방공과 이란 미사일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며 "그들은 12일 만에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청했다. 그들이 우리 미사일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멕시코 마약 카르텔 수장 사살…美 "중대 성과"

할리스코주서 엘 멘초 사망
보복 폭력 확산·도로 봉쇄

멕시코 정부가 22일(현지시간) 군사작전을 벌여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집단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주(州) 타팔파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다친 엘 멘초는 멕시코시티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멕시코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작전에서 멕시코군은 4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엘 멘초를 포함한 3명은 부상 후 숨졌다. 이밖에 2명이 체포됐고 장갑차, 로켓 발사기, 기타 무기 등이 압수됐다. 이 과정에서 군인 3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다.

할리스코주는 미국으로 방대한 양의 펜타닐과 기타 마약을 밀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카르텔의 근거지다.

작전 후 소셜미디어에는 이 지역의 관광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 상공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공항에서 사람들이 혼돈 속에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유명 카르텔 수장의 사살 소식에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들이 할리스코주와 다른 주에서 차량을 불태워 도로를 봉쇄하는 사태가 수 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는 정부의 군사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카르텔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술이다.

군사작전 후 이 같은 보복성 폭력 사태가 확산하자 할리스코주는 23일 휴교령을 내렸다. 주민들에게 귀가를 지시하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했다.

22일(현지시간)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수장 엘 멘초가 사살된 뒤 격렬한 반응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항공사 알래스카,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와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 에어캐나다 등도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과달라하라 등 할리스코주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할리스코주 주도 과달라하라는 올 여름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포함한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군사작전이 벌어진 타팔파는 과달라하라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2009년 조직된 CJNG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함께 멕시코의 양대 마약 밀매 조직으로 평가받으며, 멕시코 정부군을 공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에 숨진 엘 멘초는 1990년대부터 마약 밀매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마약 유통 모의죄로 약 3년을 복역한 뒤 멕시코로 돌아가 계속 마약 밀매를 했으며, 2017년 이후 미국 법원에서 여러 차례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엘 멘초에게 1500만 달러(약 217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제거함으로써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자국의 노력을 증명할 가장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엘 멘초 제거 소식에 미국은 곧바로 환영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멕시코 보안군이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마약 두목의 한 명인 엘 멘초를 죽였다는 소식을 방금 접했다"며 "이는 멕시코, 미국,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세계를 위한 대단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비판 계정 수천개…중국발 공작 의혹

총선 앞두고 총리·정책 비판 게시물 확산

지난 8일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의 정책을 비판하는 중국발 엑스(X·옛 트위터) 계정 약 3000개가 상호 협조하며 활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인터넷 공간 분석 업체인 '재팬 넥서스 인텔리전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3000개 계정은 총선 공시일(1월 27일) 한 주 전부터 활동을 시작해 "총리는 군비 증강과 역사 수정의 길을 열었다", "총리가 통일교로부터 표를 샀다" 등의 주장을 영어와 일본어로 게시하거나 퍼뜨렸다.

3000개 계정 중 약 1000개는 내용을 게시하고 나머지 약 2000개는 게시물을 재전송했다.

일본어 게시물에는 번역 흔적이 남거나 해시태그에 중국어 간체자가 섞인 경우도 있었으며 계정 이름도 일본어와 한자의 조합 등 공통점이 있었다. 해당 계정들은 게시물이나 재전송, 답글 수가 각각 몇 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분석 담당자는 "동일 계정으로 게시물을 대량으로 올리면 부정행위가 감지될 수 있어 다수의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여러 특징으로 보아 중국발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일본에 대한 해외의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인도·방글라데시, 관계 정상화 '물꼬'

독립 이후 최악 갈등 봉합 나서

인도가 방글라데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 복원에 나섰다. 2024년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퇴진 이후 급격히 냉각됐던 외교 기류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23일 인도 방송 NDTV 등에 따르면 프라나이 베르마 주방글라데시 인도 대사는 전날 다카에서 카릴루르 라흐만 신임 외무장관을 만나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방글라데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회동이다. 베르마 대사는 "새 정부와 관계를 정상화하길 고대한다"며 인적 교류와 호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하시나 전 총리가 2024년 8월 사퇴 후 인도로 피신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신병 인계 요구에 인도가 응하지 않으면서 관계는 1971년 독립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달 총선에서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이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타리크 라흐만 총재 대행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고, 양국 간 고위급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군사 지원을 통해 탄생을 도운 바 있다. /연합뉴스